

90. 4. 13

서씨는 작년 11월 조합원총회를 이유로 이종엽위원장 등 4명이 정계위에 회부되자 이를 저지하다 관리직 남자 사원들에게 구타당했는데, 이 회사 오일환사장은 오히려 서씨를 마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서씨의 남편인 허태완(32·창원기화기 해고자)씨도 지난달 발생한 마창지역 프락치사건과 관련해 현재 특수감금폭행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노조대의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박준석(28) 김상일(29)씨를 후원하기 위해 열린 이날 집회에서 해고자 박씨는 “내 발로는 회사를 떠나지 않겠으며 원직복직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